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대청소를 진행했다. 수영장 용수 및 여과재 교체, 헬스장 기구 및 환기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직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내부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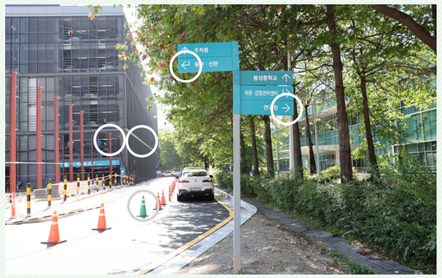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80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독서의 계절,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심장병원간호팀 최인영 대리가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10월 15일(목)
발표 제784호(2026년 11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노예옥(건진운영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배아정(병리팀)
이시은(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양슬기(영상의학팀)
양인선(중앙공급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진영(외과간호1팀)
박양재(심장병원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권미량(진단검사의학팀)
심유진(암병원간호2팀)
어유정(영상의학과)
조국희(응급간호팀)
최정와(간호교육행정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82 2026. 10. 1



국내 첫 태아심장센터 개소… 고난도 태아치료 선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치료하고 있는 우리 병원이 최근 태아심장센터를 개소했다. 2004년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에서 분리해 태아 심장질환에 특화된 치료를 시행한다. 태아심장센터는 심장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만 계획부터 출생 직후 처치 및 수술까지 연속성 있게 치료한다. 다학제 진료와 최신 치료법을 도입해 고위험 심장질환 태아의 조기 관리뿐 아니라 신생아, 영아기 심장수술 성공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병원의 중증질환 치료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이미영 태아심장센터소장(왼쪽 두 번째)이 고위험 산모의 태아심장 정밀초음파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02 NEWS 美 뉴스위크, 6개 분야 세계 TOP 10 '국내 최다'
07 NEWS 두경부암 미세재건수술 2,000례
12 바이오 인사이드 CT와 MRI, 진단을 넘어 연구와 치료로
16 문화·생활정보 저녁 풍경을 즐기는 전망대 여행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96 **디자인인쇄** 큐라인

美 뉴스위크, 6개 분야 세계 TOP 10 '국내 최다'

내분비 2위·소화기 5위·비뇨기 5위·암 6위·신경 9위·신장 9위



우리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2027년도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조사에서 내분비·소화기·비뇨기·암·신경·신장 분야가 세계 TOP 10에 올랐다. 국내 1위를 차지한 분야 역시 6개로 국내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시행한 '2027년도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조사에서 전체 평가 분야 13개 중 6개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세계 TOP 10에 6개 분야를 진입시킨 병원은 국내에서 우리 병원이 유일하며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전 세계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3개 분야에 대한 최종 결과를 9월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의료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83.5%) ▲의료기관 국제 인증(10%)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시행(6.5%)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 병원은 내분비 분야 세계 2위를 비롯해 소화기·비뇨기 5위, 암 6위, 신경·신장 9위를 차지했다. 내분비 분야는 뉴스위크 평가를 시작한 이래 7년 연속 세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 2위에 오르며 국내 병원을 통틀어 뉴스위크가 평가하는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소화기, 암, 신경 분야 역시 7년간 세계 10위 안에 자리했다. 올해 처음 평가를 시행한 신장 분야는 세계 9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정형 11위, 심장 13위, 호흡기 14위, 심장수술 23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높은 세계 순위와 함께 우리 병원은 내분비, 소화기, 신경, 신장, 심장, 심장수술 총 6개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해 대한민국 최고 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순위가 상승한 분야가 8개로 많았다. 신경수술 분야는 27단계, 산부인과 11단계, 심장수술 7단계, 호흡기 6단계, 심장 4단계, 내분비·소아 2단계, 비뇨기 분야는 1단계 상승했다.

우리 병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미국, 아랍에미리트, 몽골 등에서 2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해외 환자뿐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 노하우를 배우려는 해외 의학자들의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 병원을 다녀간 해외 의학자는 90여 개국 3,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 병원은 질병 치료는 물론 환자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가치기반의료 체계 구축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을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등 평가 체계를 통해 상시 측정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PROMs와 환자경험, 임상질지표 업무를 하나로 융합해 전담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일 병원장은 "암, 장기이식, 심장 등 중증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우리 병원은 1989년 개원 당시부터 환자 중심 병원을 선언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6개 분야 세계 10위권 선정이라는 우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환자자기평가와 환자경험지표 등을 토대로 가치기반의료 체계를 구축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ewsweek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7

Endocrinology

1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2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3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4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5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Germany

Gastroenterology

1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3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4	The Johns Hopkins Hospital	United States
5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Urology

1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2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3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outh Korea
4	The Johns Hopkins Hospital	United States
5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Oncology

1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United States
2	MD Anderson Cancer Center	United States
3	Gustave Roussy	France
4	The Royal Marsden Hospital - London	United Kingdom
6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Neurology

1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Germany
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3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4	The Johns Hopkins Hospital	United States
9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Nephrology

1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Germany
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3	The Johns Hopkins Hospital	United States
4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9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Orthopedics

1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United States
2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3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4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Germany
11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Cardiology

1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2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4	The Mount Sinai Hospital	United States
13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Pulmonology

1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2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3	The Johns Hopkins Hospital	United States
4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14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Cardiac Surgery

1	Mayo Clinic - Rochester	United States
2	Cleveland Clinic	United States
3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nited States
4	Deutsches Herzzentrum der Charité	Germany
23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

고난도 태아 심장질환 특화 진료



이미영 태아심장센터소장, 원혜성 태아치료센터소장(뒷줄 왼쪽 첫 번째, 세 번째)을 비롯한 의료진이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태아 심장질환을 전담해 치료하는 태아심장센터를 최근 개소했다. 태아 심장질환을 전담하는 독립 센터로는 국내 유일하다.

태아심장센터는 산부인과·신생아과·소아청소년심장과·소아심장외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분만 계획 수립부터 출생 직후 처치 및 수술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신관 6층에 자리하고 심장 정밀초음파 장비를 확충해 산모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였다.

태아심장센터 개소의 기반에는 200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태아치료센터의 임상 경험과 치료 성과가 있다. 태아치료센터는 누적 태아 정밀초음파 10만여 건을 실시했으며 양수·융모막·제대혈 등 진단검사 건수는 1만 건에 달한다. 또한 산모의 배를 열지 않고 태아의 몸에 관을 꽂아 흉수나 복수 등을 빼는 태아 션트 수술은 최근까지 700여 건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태아내시경수술 약 340건, 고주파 용해술 약 300건, 태아 수혈 약 230건 등 총 1,570여 건의 고난도 태아 치료를 시행해 왔다.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연간 태아심장 정밀초음파 검사 건수가 2025년 약 1,530건으로 2004년 약 300건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태아 정밀초음파 3건 중 1건에 해당한다.

이미영 태아심장센터소장은 "앞으로 고난도 태아 중재시술인 '태아심장 카테터시술' 등 최신 치료를 적극 도입해 중증 태아심장질환 치료 역량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5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환자안전 재점검



9월 18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평가 종료식에서 박승일 병원장(왼쪽)이 소병학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팀장으로부터 총평 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5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운영체계와 의료서비스 질, 환자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기간에 조사위원들은 병원 곳곳을 방문해 규정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조사위원들은 병원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직원들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해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자 면담 결과 환자들이 우리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서류 및 현장 평가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태용 AGS실장은 "이번 인증은 진료, 간호, 검사, 약제, 지원 등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직원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승규 석좌교수, 일본이식학회 초청강연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가 9월 12일 일본이식학회 제6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가 9월 10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이식학회 제62회 국제학술대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은 단일 의료기관 세계 첫 간이식 9,000례를 달성한 우리 병원 간이식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는 일본이식학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석좌교수는 학회 마지막 날인 9월 12일 마련된 특별강연 세션에서 일본 이식 분야 의료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 우엽 생체간이식: 아시아가 이끈 획기적인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함께 연자로 초청된 다나카 고이치 일본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세계 생체간이식의 발전을 이끌어 온 과정과 성과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우리 병원 간이식팀은 더 많은 중증 간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수술법을 세계 이식 학계에 제시해 왔다. 이승규 석좌교수가 199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형우엽 간이식은 현재 전 세계에서 표준 수술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2대 1 생체간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면역학적 고위험군인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혈액형 적합 간이식과 대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기증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우리 병원은 2008년 국내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절제에 성공했다. 이후로도 로봇, 복강경과 최소절개술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소아암 환아 가족에게 가을 나들이 선물



'아워 히어로즈' 롯데월드 나들이에 참여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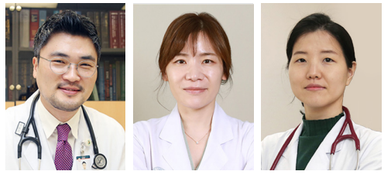
우리 병원이 9월 22일 소아암 등 중증질환 환아와 가족 60명을 롯데월드로 초청해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 활동 '아워 히어로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5월 진행된 울산 여행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아워 히어로즈는 '오랜 시간 질병과 맞서 싸워온 작은 영웅인 환아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 가족들의 시설 이용권과 식사, 기념품 등 비용 전액은 HD현대1%나눔재단이 지원했다.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강성한 부교수, 어린이병원 이은옥 과장도 동행해 환아들이 안전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열다섯 가족은 바이킹과 회전목마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놀이동산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또한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 전망대도 구경하며 치료로 미뤄왔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 누렸다.

행사에 참여한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강성한 부교수는 "환아들이 놀이동산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의료진으로서도 기쁜 마음이다. 오랜 치료를 견뎌온 환아들이 가족과 함께한 오늘의 기억을 힘으로 삼아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후 4주 내 전장유전체로 희귀유전질환 찾는다


이범희 교수

김자혜 부교수

황수진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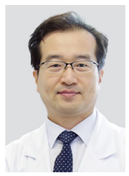
소아청소년전문과 이범희 교수, 김자혜 부교수, 황수진 조교수팀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신생아 대상 유전체 기반 선별검사 국가사업인 '아기지기' 프로젝트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해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유전체 기반 선별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공중보건사업이다.

연구팀은 4월부터 다학제 협의체 구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참여자 모집 및 상담 체계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실제 신생아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규모는 올해 1차 연도 5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800명이다. 주관 연구기관인 우리 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이 참여한다.

희귀유전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와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신생아 선별검사는 50여 종의 선천성 대사이상질환과 6종의 리소좀 축적질환, 청각 선별검사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생아 전장유전체 스크리닝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 세계적 차원의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유전체 기반 선별검사의 진단 효율성과 임상적·경제적 유용성을 검증해 향후 정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혈액암 환자 재활치료 효과·안전성 확인


전재용 교수


차승우 조교수


이정희 교수


허준영 부교수

혈액암은 혈소판감소증이나 빈혈 등으로 출혈, 감염 위험이 높아 재활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구체적인 재활치료 지침도 부족한 가운데, 재활치료를 많이 받은 혈액암 환자군일수록 신체기능 향상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차승우 조교수, 혈액내과 이정희 교수·허준영 부교수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혈액암으로 입원한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전후의 신체기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재활치료 횟수에 따라 환자를 10회 미만, 10~20회, 20회 초과 군으로 나누고 암환자기능평가도구(cFAS)를 활용해 균형감각, 지구력, 일상생활 능력 등 환자들의 신체기능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팀은 안전한 재활치료를 위해 병동 내 운동치료실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적인 암재활 프로그램 대신 혈액암 환자의 낮은 혈액수치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누운 자세에서 시작해 앉기, 서기, 기능적 동작 순으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했다.

그 결과 10회 미만 환자군의 cFAS 점수는 57.4점에서 57.6점으로, 10~20회 환자군은 52.8점에서 57.5점으로 높아졌다. 특히 20회 초과 환자군은 53.2점에서 69.6점으로 30.8% 상승해 재활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신체기능 회복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혈소판감소증 등 고위험 혈액수치를 보인 환자가 다수 포함됐지만 낙상이나 출혈 등 중증 합병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혈액암 재활치료의 안전성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종양 지지치료」에 최근 게재됐다.

두경부암 미세재건수술 2,000례



이비인후과 최승호,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뒷줄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비롯한 의료진이 9월 10일 열린 두경부암 미세재건수술 2,000례 달성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외과 최종우·오태석 교수, 정우식 부교수, 김영철 조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두경부암 미세재건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1996년 첫 수술을 시작해 2019년 1,000례를 달성한 이후 불과 7년 만에 다시 1,000례를 시행한 결과다.

두경부암 치료에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제거된 조직을 재건해 환자의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재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하거나 음식을 삼키는 기본적인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얼굴과 목의 형태에도 큰 변형이 생길 수 있다.

미세유리피판 재건수술은 환자의 허벅지, 팔, 복부, 종아리 등에서 피부나 근육·뼈 등의 조직을 혈관과 함께 채취해 암 제거 부위로 옮겨 이식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이식한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 현미경을 보면서 직경 1~2mm의 작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다.

두경부암 수술은 이비인후과 두경부암팀이 5~6시간에 걸쳐 암과 경부 림프절을 제거한 직후 성형외과 재건팀이 수술을 이어받아 다시 5~6시간 이상 재건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진료과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강 내 복잡한 3차원 해부학적 구조를 복원하고 침이 수술 부위로 새지 않도록 정교하게 봉합해야 해 의료진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 우리 병원 성형외과 두경부재건성형팀은 이러한 고난도 미세유리피판 재건수술에서 약 97%의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우 교수는 "두경부암 치료와 재건은 어느 한 명의 의사만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 두경부암팀을 비롯해 성형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치과와 간호팀 등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 온 팀워크가 있었기에 2,000례 달성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단순히 암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최대한 정상적인 기능과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암젠 경영진 방문



이펜 창 암젠 부사장, 김태원 연구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다섯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암젠의 이펜 창 종양학 글로벌 개발 부문 부사장과 관계자들이 9월 14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원 연구원장,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등 우리 병원 보직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항암 신약 개발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암젠의 글로벌 네트워크 '암젠 파트너스 오브 초이스(APoC)'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리 병원은 2023년 출범한 APoC의 국내 유일 참여 기관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병원과 암젠의 주요 협력 성과 및 진행 현황 공유 ▲MSI-H 대장암·DeLLight 임상시험 과제의 성과와 연구 논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암젠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우리 병원 병리과 시설을 둘러봤으며 행사 후에는 아산기념전시실을 방문했다.

카자흐스탄 병원과 업무협약



박승일 병원장(왼쪽)과 배유리 나자르바예프대학교 부속병원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9월 15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교 부속병원(UM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적 자원 및 학술 정보 교류, 환자 치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2013년과 2019년 우리 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에게 연수를 받은 UMC의 간이식 프로그램 총괄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최근 UMC 의료진 3명이 김 교수에게 연수를 받고 돌아갔으며 김 교수는 오는 11월 UMC를 방문해 생체간이식 수술을 실시하며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신경비상팀 심포지엄



9월 19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8회 신경비상팀(NET) 심포지엄이 9월 19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신경중환자 응급상황에서의 뇌-심장 축(Brain-Heart Axis)'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신경계 중환자 치료 분야 의료진 26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심정지 후 증후군의 최신 신경보호 치료와 예후 예측 ▲뇌졸중과 심장의 상호작용 ▲체외순환 보조 치료와 신경학적 합병증 관리 ▲급성 뇌손상 환자의 혈압 관리와 자율신경 이상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 NET팀장(신경과 부교수)은 "뇌와 심장은 임상현장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중증 입원환자의 신경-심장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다학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규리	500,000
김다현	100,000
김성구	5,000,000
김영길	2,000,000
김예진	100,000
김희경	500,000
대영기계공업(주)	200,000,000
박상건	1,000,000
영진앵글(주)	65,000,000
이채윤	3,000,000
정재우	100,000,000
(주)투게더홀딩스	100,000,000
(주)한솥	10,000,000

불우환자 지원

강미석	300,000
안언정	10,000,000
영진앵글(주)	35,000,000
유승희	10,000,000
이로아	300,000
주식회사 크라투스	10,000,000
(주)한솥	10,000,000
최민하	5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최수연	1,000,000

- 2026년 9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정

이인섭 교수, 유주노 임상강사 학회서 수상


이인섭 교수


유주노 임상강사

위장관외과 이인섭 교수, 유주노 임상강사가 9월 17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이인섭 교수는 위암 진료와 연구, 학술 활동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 회원 공헌상'을 받았다. 유주노 임상강사는 '절제 가능한 진행성 위암 환자 중 선행항암요법군과 선행수술군의 교과서 종양학적 치료 결과 평가'를 주제로 최우수구연발표상을 받았다.

김동주 진료전임강사 우수구연상



응급의학과 김동주 진료전임강사가 9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응급중환자영상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진료전임강사는 '급성 위장관 출혈에서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의 진단 정확도와 이질성: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장혜원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혈관외과 장혜원 임상강사가 9월 11일 열린 제86차 대한혈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장 임상강사는 '스텐트그라프트 제거술과 기저 특성을 매칭한 일차적 개복수술의 비교'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양수연 대리 최우수상



임상연구보호센터 양수연 대리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제24회 연례회의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양 대리는 '평가-성과-개선 선순환 체계에 기반한 자체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구축의 국내 최초 사례'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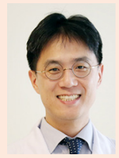
의학물리지원실 연수자 수상·국책과제 수주


박기홍 의학물리연수자


박종한 의학물리연수자

의학물리지원실 박기홍 의학물리연수자가 9월 9일부터 3일간 열린 제2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의학물리학회에서 '전자빔 필드 제어용 갠트리 부착형 전자석 어셈블리의 헬륨백을 이용한 공기 중 산란 저감 몬테카를로 연구'를 주제로 포스터발표상을 받았다. 박종한 의학물리연수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기초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2026년 9월부터 3년간 '의료용 선형가속기 기반 광자빔 에너지 변조 모듈레이터 개발 및 임상 적용 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어린이병원·혈액내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강성한 부교수


박현경 부교수


김서연 임상강사


박지선 임상강사


한진희 임상강사


최은석 차장

어린이병원과 혈액내과 의료진이 9월 16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조혈모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6)에서 수상했다.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강성한 부교수는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T세포 제거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의 치료 성적'을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김서연 임상강사와 어린이병원간호팀 최은석 차장은 각각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후 면역재건 및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서의 단일 세포 역동성 연구', '소아 재발성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환자에서 2촌 혈연 공여자를 이용한 4차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 사례'를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혈액내과 박현경 부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첫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전 집중항암치료와 저메틸화제-베네토클락스 치료 후 이식 성적 비교', 박지선 임상강사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한 급성 백혈병 환자의 베네토클락스와 저메틸화제 병용 요법 치료', 한진희 임상강사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5년 이후 재발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높은 골수외 침범 빈도'를 주제로 각각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선천성 심장병」 중국어판 출간

소아청소년심장과 박인숙 명예교수가 집필하고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 영상의학과 구현우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선천성 심장병」의 중국어판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2019년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를 통해 영문판으로 출간됐으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국어판으로도 번역됐다. 해부학적 모식도와 절개 표본 사진 등 풍부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선천성 심장병의 진단과 치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폐동맥고혈압 발생 기전과 새로운 치료 표적 제시



심장내과 박찬순 조교수

심장내과 박찬순 조교수가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게재한 연구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18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부터 전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연구는 폐동맥고혈압 발생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인 Sox17의 기능을 규명하고, 간세포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인 c-MET의 신호전달체계를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폐동맥고혈압은 폐의 작은 동맥이 좁아지면서 폐동맥압이 상승하고, 결국 우심실 기능 저하와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대규모 유전체 연구에서 폐혈관 내피세포에 발현되는 Sox17이 질환과 연관된 유전자로 제시됐지만, 기능 저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질환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유전적 취약성과 저산소증 같은 환경적 자극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기존 동물모델이 사람의 지속적이고 비가역적인 혈관 변화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혈관내피세포의 Sox17 결핍이 저산소 환경과 결합할 때 폐동맥고혈압을 유발하는지, 이를 매개하는 분자 기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성체 생쥐의 혈관내피세포에서 선택적으로 Sox17을 결핍시킨 뒤 저산소 환경에 노출했다. Sox17 결핍만으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저산소 환경이 더해지자 폐동맥의 근육화와 혈관벽 비후, 염증세포 침윤, 우심실 비대와 폐동맥압 상승이 나타났다. 저산소 노출을 중단한 뒤에도 변화가 지속돼 유전적 취약성에 환경적 스트레스라는 '두 번째 자극'이 더해질 때 질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기전을 보여줬다.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는 Sox17 결핍 시 간세포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인 c-MET의 신호전달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c-MET 억제제를 투여하자 폐혈관의 병적 변화가 감소했다. 기존 치료제와 병용했을 때는 이미 형성된 폐동맥고혈압의 병적 소견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환자 폐 조직에서도 15명 중 4명에서 Sox17 발현이 감소하고 13명에서 간세포성장인자 발현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기전이 실제 환자에서도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치료 표적을 제시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발견한 질문을 분자 수준의 기전 연구로 확장하고, 다시 환자 조직에서 의미를 확인하는 중개연구의 과정을 경험했다. 앞으로도 임상 현장의 질문을 기초·중개연구와 환자 데이터로 연결해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진행,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해 새로운 위험도 평가 방법과 치료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통합돌봄지원팀 / 재해예방관리실 / 노사협력팀 / 기획팀

뜨거운 현장에 불어온 안전한 바람

전국 최고기온이 42.5℃까지 치솟았던 지난여름, 재해예방관리실 안전관리자들은 정기 근로환경 위험성평가에서 뜻밖의 위험요소를 발견했다. 병원 밖에서 환자를 만나는 통합돌봄지원팀 가정전문간호사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재해예방관리실은 노사협력팀 보건관리자와 함께 직접 통합돌봄지원팀을 찾았다. 가정전문간호사들은 방문하는 가정마다 냉방 여건이 다른 데다 때로는 차량을 세운 뒤 언덕을 올라야 하고, 매번 간호 물품을 챙겨 이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험성평가로 드러난 건 단순한 '더위' 그 이상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무엇일까?"



1



2



3

1 2 폭염 속 가정전문간호사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3 쿨링조끼를 착용한 실제 가정간호 현장.

역할은 달라도, 필요한 순간에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재해예방관리실이 현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노사협력팀**은 보건관리 관점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폈다. 통합돌봄지원팀이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재해예방관리실은 안전보건 긴급 물품 지원에 대한 행정절차와 후속 업무를 곧이어 진행했다.

본격적인 폭염철을 앞두고 '바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기획팀**도 뜻을 모았다. 긴급 지원 예산 전용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하고, 품의와 예산 통제 과정에서도 각 부서가 필요한 내용을 즉시 확인하며 예산이 제때 확보되도록 힘을 보탰다. **통합돌봄지원팀**은 물품 구입부터 회계 절차, 지급·관리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위험을 발견한 부서, 해결책을 찾은 부서, 예산과 행정을 연결한 부서. 서로 다른 역할이 신속하게 맞물렸다.

현장에서 체감한 협업의 힘

변화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보냉장구로 지급된 쿨링조끼를 착용한 가정전문간호사들은 땀을 덜 흘리며 한결 수월하게 환자를 간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환자들도 조끼에 관심을 보였다. "역시 서울아산병원이야, 큰 병원이 직원 한 명 한 명까지 잘 챙기네!" 직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개선으로 연결한 과정은 현장에 자긍심과 안전감을 함께 남겼다.

협업에 참여한 부서에도 의미는 컸다. 재해예방관리실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근무환경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기획팀 역시 예산 검토와 전용이라는 행정 업무가 현장의 안전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뜻깊게 받아들였다.

각자의 역할이 빠르게 맞물리며 무더운 현장에 안전한 바람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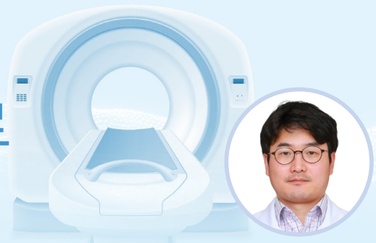


가정전문간호사의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해 협업한 통합돌봄지원팀, 재해예방관리실, 노사협력팀, 기획팀 직원들.

>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빠르게 연결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이번 협업이 보여준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협업의 가치' 코너에서는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CT와 MRI 진단을 넘어 연구와 치료로



780호 'CT와 MRI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편에 이어서

융합연구지원센터 우동철 교수

지난호에서는 CT와 MRI가 서로 다른 원리에서 출발해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살펴봤습니다. CT의 기반 기술인 X선과 MRI의 기반 기술인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은 병원 검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생명과학 연구 전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에서 CT와 MRI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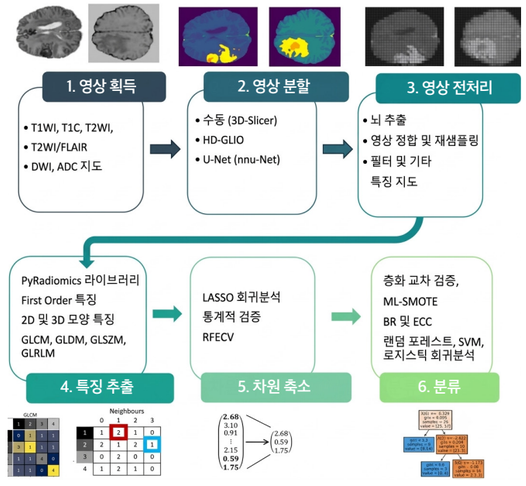
단백질 결정에 X선을 쪼일 때 나타나는 회절 패턴을 분석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X선 결정학(X-ray Crystallography)입니다. 이 기술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약물과 표적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원리로 약이 작용하는지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X선은 동식물 표본의 내부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찰하는 데에도 쓰이고, 최근에는 바이오 소재나 생체 재료와 같은 나노 구조체의 미세 균열과 내부 결함을 분석하는 분야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NMR 역시 천연물이나 합성 화합물의 구조를 규명하고, 생체 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단백질 동역학(protein dynamics), 분자 간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데 폭넓게 쓰입니다. 나아가 생체 시료에서 질병과 관련된 대사산물을 분석하는 대사체학(metabolomics), 식품의 발효 과정과 성분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 분석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T와 MRI는 의학을 넘어 생명과학 전 분야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생체 내(in vivo) 영상화를 통해 동물 모델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변화를 비침습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장기간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예컨대 종양학 및 항암제 효능 평가 연구에서는 CT와 MRI로 종양 조직의 성장과 치료 반응을 관찰합니다.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이식된 세포나 조직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합니다.

두 영상 기술은 특징이 다른 만큼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도 다릅니다. CT는 뼈, 치아, 폐처럼 조직 간 밀도 차이가 큰 장기, 미세 병변이나 배아처럼 초고해상도 영상이 필요한 연구에 유리합니다. MRI는 근육이나 지방, 장기처럼 물렁한 조직들을 서로 구분해 보여주는 능력, 즉 연부조직(soft tissue) 대조도가 뛰어나 여러 장기의 질환 연구에 적합합니다. 특히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뇌·신경과학 연구에서는 필수 장비로 꼽힙니다.

CT와 MRI가 공통으로 가진 장점은 같은 개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질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 반응을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체를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개체 간 변이가 줄어들어 통계적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실험동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3R 원칙(Replacement(대체), Reduction(감소), Refinement(개선))에도 부합하는, 윤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연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RI 영상은 전처리, 병변 분할 과정을 거쳐 라디오믹스(Radiomics) 기술을 통해 수치화된 특징 정보로 추출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원을 축소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질환의 악성 가능성 및 예후를 예측합니다. (출처: Stanislav Kozák, 2024)

경쟁을 넘어 동반자로

지난 수십 년간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CT와 MRI는 서로 경쟁하며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쟁을 넘어 상호 보완적 동반자로서 진료와 연구 현장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와의 융합, 고해상도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 환자 한 사람에게 맞춘 실시간 진단과 치료를 향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AI는 이미 영상을 더 빠르고 선명하게 획득하며 다양한 병변과 이상 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질환의 악성 가능성 예측, 예후 분석, 그리고 치료 전략 제안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영상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질감과 형태 등 특징을 수치화해 분석하는 라디오믹스(Radiomics), 그렇게 얻은 영상 정보를 유전 정보와 질환의 생리·병리적 특성과 연결하는 라디오제노믹스(Radiogenomics)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CT·MRI 영상과 다양한 생물학적 조영제를 결합한 고정밀 분자영상 기술은 조직의 병리학적·생리학적·기능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밀의료 구현과 바이오 연구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MRI가 보여주는 정밀한 구조 영상과 PET이 보여주는 대사·기능 정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영상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MR 유도 고강도 집속초음파(Magnetic Resonance-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MR-HIFU)와 같은 영상 유도 치료 장비의 활용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고 안전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래의 CT와 MRI는 영상 진단 장비를 넘어 AI 기반 스마트 통합 진단·치료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정밀의료와 환자 맞춤형 의료의 핵심 기술인 동시에 기초의학 연구와 임상을 연결하는 강력한 중개연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비침습적이고 반복 가능한 영상 기반 연구를 통해 윤리적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연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연구에 활용되는 다양한 영상 장비들.

이 그림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 '바이오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연구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현장의 연구자들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내게 남긴 오늘



중환자간호팀 김윤영 과장

병원의 아침은 밤새 환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감염관리센터 전문간호사인 나는 그날도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11호실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감염성 격리가 필요한 혈액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다.

그런데 문 앞에 놓인 응급카트와 분주하게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끊임없이 울리는 모니터 알람이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전하고 있었다. 혈압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승압제는 하나씩 추가되거나 용량이 늘어갔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환자의 몸이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환자의 의식은 또렷했다. 나는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건네며 보호자가 없는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길 바랐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살피고, 미처 표현하지 못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전문간호사인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치료 잘 받고 꼭 올게요."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환자에게 회복해서 다시 만나자며 배웅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날의 대화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환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제야 내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이 두려움과 희망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견디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어느 병실에서는 퇴원을 앞둔 웃음이 들리고 또 다른 병실에서는 마지막 시간을 준비한다. 같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희망과 이별이 함께 지나간다. 수없이 이별을 마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해졌고 늘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환자와의 이별을 겪을 때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부끄러워 미뤄둔 말들도 함께 떠오른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별을 자주 마주하는 의료진에게 병원은 매 순간 오늘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곳인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깨달았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오늘을 정성껏 돌보고 나의 오늘 또한 후회 없이 살아내고 싶다. 모든 순간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는 또 다시 병실의 문을 연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코너에서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술 없이도 쉴 수 있을까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나는 술을 좋아할 뿐, 음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술 때문에 결근한 적도 없고 맡은 업무도 해내고 있다면 자신에게 음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음주 문제는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보다 자주 마시고, 긴장을 풀거나 잠들기 위해 술을 찾고,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고 업무를 마치는 데 익숙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 수행에는 아직 문제가 없더라도 수면의 질,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강압적인 회식과 과음 문화는 많이 줄었지만 음주는 혼술이나 반주처럼 더 사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힘든 일과를 마친 후 술 한 잔은 긴장을 빠르게 낮추고 쉽게 잠드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뇌가 특정 시간과 장소, 감정을 술과 연결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퇴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술이 떠오르고, 술 없는 저녁은 허전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될 때 술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휴식과 수면, 감정 조절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

자신의 음주 상태를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술을 마시는 날짜와 양, 술을 찾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2주 정도 금주해 보는 것이다. 다만 매일 많은 양을 마시거나 술을 줄였을 때 손떨림, 식은땀, 심한 불안이나 불면을 경험한 사람은 금단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금단 위험이 크지 않은데도 술 없는 저녁을 견디기 어렵거나 여러 이유를 대며 술을 다시 마시게 된다면 음주가 이미 생각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잠들기 위해 또는 불안, 우울, 외로움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술을 찾았다면 술만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변화는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에 있는 술을 치우고, 음주를 권하는 자리를 피하며, 술을 마시던 시간에 운동이나 산책과 같은 다른 일정을 넣어야 한다. 술은 중독성 물질인 만큼 소소한 일상의 활동이 술을 대신할 만큼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작고 반복적인 보상을 쌓아가야 술이 일상에서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든다.

건강행동의 변화는 대개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혹시 문제일지도 모른다'라고 돌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자신의 음주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다. 혼자 조절하기 어려울 때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상담을 통해 음주 양상과 술을 찾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음주 갈망을 줄이거나 술의 보상 효과를 낮추는 약물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의 음주를 돌아보는 것은 술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나는 술 없이도 쉬고, 잠들고, 힘든 감정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이 술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좋은 시기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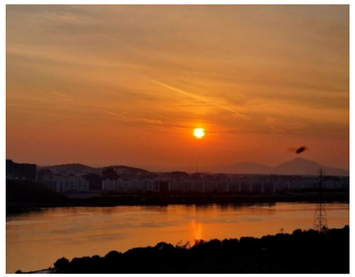
해가 짧아지는 계절
저녁 풍경을 즐기는 전망대 여행

붉게 물드는 노을부터 하나둘 불을 밝히는 도시의 야경까지, 해가 일찍 지는 가을은 조금 이른 시간부터 저녁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저녁을 특별하게 보내기 좋은 전망대를 소개한다. 〈편집실〉





하늘공원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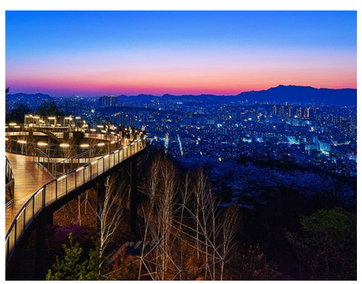


드넓은 억새밭 너머로 한강과 월드컵대교, 도심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가을에는 은빛 억새와 붉게 물드는 하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억새밭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걷는 동안 가을 정취를 여유롭게 느끼는 것도 좋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25회 서울억새축제가 진행된다.

한줄팁 걷기 부담스럽다면 난지천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하늘공원까지 운행하는 '맹꽁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위치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일대
가는 길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40분

용마산 스카이워크



길이 약 160m, 최대 높이 약 10m의 목재 데크길로 숲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남산 서울타워부터 봉화산, 도봉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북부 산줄기와 도심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해 질 무렵 도심과 산 능선이 함께 붉게 물들어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한줄팁 해가 진 뒤 산길을 내려올 예정이라면 손전등과 같은 조명 장비와 편한 신발을 준비하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산1-3 일대
가는 길 7호선 사가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50분 (사가정공원 등산로 이용 시 40~50분 소요)

용왕산 스카이워크



숲 위로 이어지는 완만한 나선형 길을 따라 오르면 월드컵대교와 한강, 상암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계단 없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무장애 데크길이라 비교적 부담 없이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숲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걸을 때 데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한줄팁 노을이 지기 전 도착해 용왕정과 스카이워크의 조명이 켜지는 시간까지 머물러보자. 🌟

위치 양천구 목동 199-51 일대
가는 길 9호선 신목동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15분

삼성해맞이공원

삼성동의 한강변 언덕 위에 자리해 한강과 청담대교, 잠실 일대의 도심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 고층 건물 불빛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야경이 특히 돋보인다. 잔디광장과 데크 쉼터가 마련돼 있어 간단한 음식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다.

한줄팁 산행 부담 없이 가볍게 노을과 야경을 즐기고 싶을 때 추천한다. 🌟

위치 강남구 삼성동 82-79-1 일대
가는 길 7호선 청담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응봉산 팔각정

한강과 뚝섬, 압구정 일대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다. 오르는 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한강변의 도심 불빛을 가까이 볼 수 있다. 해 질 무렵부터 밤까지 풍경의 변화가 뚜렷하다.

한줄팁 노을이 번지는 초저녁, 한강과 다리, 도로에 불빛이 한층 선명해지는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

위치 성동구 독서당로 362
가는 길 경의중앙선 응봉역에서 도보 10~15분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

‘해도 괜찮다’는 말을 건네기까지

혈액내과 최윤숙 부교수



한국혈액암협회 ‘조혈모세포이식 메디컬 멘토링’

9월 12일 토요일, 한국혈액암협회 ‘조혈모세포이식 메디컬 멘토링’에서 열다섯 팀의 환자와 가족을 만났다. 협회 자문의료진으로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과 공여자 선정 기준, 환자가 준비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강의하고 짧은 1:1 상담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환자들 중에는 내가 직접 이식했던 분도 있었고 우리 병원의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았다. 서울, 대전, 전남, 포항, 제주, 그리고 멀리 독일에서까지 오신 분들을 보며 환자와 가족들의 열정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급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섬유증 등 앓고 있는 병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이 내게 가지고 온 질문들은 신기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대개 증상, 검사 수치, 치료 계획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궁금해한 것은 식사, 운동과 청소, 출근과 여행, 곁에 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도 되는지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이식 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 위생상 조심할 행동 등 수많은 주의사항을 듣다 보니, 가족과 마주 보고 식사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손주를 안아 보는 것조차 의사의 허락을 구하게 된다.

환자들에게 완치란 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식사하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은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다. 이식 후 2년을 넘긴 한 환자는 몸이 훨씬 아팠던 그때보다 지금 마음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의 회복 속도는 다르지만 짧은 진료 시간에 환자가 그 마음을 꺼내 보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환자의 표정과 아픈 마음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다고 느꼈다.

환자마다 5분씩 진행된 개별 면담도 먼 길을 오신 걸 생각하니 턱없이 짧게 느껴졌다. 다 풀어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을까 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와의 짧은 만남이 그날 만난 모든 환자의 회복 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기를 바란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이들의 수고스러운 발걸음을 떠올리며 오늘도 힘을 내본다.

굿바이 콩글리시

우리말에서 ‘쥐가 나다’와 ‘찌릿찌릿 저린 느낌’이 다르듯 영어에서도 표현이 다르다. 쥐가 나서 발의 감각이 없다면 “My foot feels numb”, 다리가 저릴 때는 “I’ve got pins and needles in my leg(바늘이 찌르는 것 같다)”를 쓰자. 짧게는 “My foot is tingling”이라고도 한다.



발에 쥐가 났어요

- My foot feels numb.

발이 저릿저릿해요

- I’ve got pins and needles in my leg.
- My foot is tingling.

Let’s Talk

A My foot feels numb. I can’t move it well.
발에 쥐가 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B I’ll help you stretch it out.
스트레칭 도와드릴게요.

거절을 잘하는 것도 대화의 기술이다. 상대가 음료를 권하거나 자리를 양보하는데 거절해야 한다면 흔히 “No, thanks”라고 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단호하게 들릴 수 있다. 대신 “I’m good, thanks”라고 말해 보자. 거절 표현이지만 물어봐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훨씬 부드럽게 들린다.

괜찮습니다

- No, thanks.
- I’m good, thanks.



Let’s Talk

A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커피 좀 더 드릴까요?

B I’m good, thanks.
괜찮습니다.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풍납동 사진관

새 심장과 함께한 31년

1995년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언제 다시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지 몰라
환자는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 1년, 2년… 그리고 어느덧 31년.
불안은 안도로 바뀌었고
우리 병원 심장이식 최장기 생존자가 됐습니다.
환자의 환한 웃음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 장기이식센터 김인옥 차장



심장내과,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 심장이식 31년 환우(앞줄 왼쪽 두 번째)가 함께 찍은 기념 사진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피부과 김수연 연구원

융합형 의사과학자사업단의 특별강연과 미국 UCLA 협약 소식 등 이번 호 뉴스들을 읽으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병원의 모습을 체감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병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단검사의학팀 유지애 주임

‘풍납동 사진관 - 한 세기를 지나 맞은 새로운 하루’가 인상 깊었습니다. 100세에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과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의료진 모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환자분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라영아 사원

‘문화·생활정보 - 독서의 계절,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좋았습니다. 소개된 도서관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다 가보려 합니다.

임상시험센터 최민경 사원

‘연구노트’ 코너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의 연구를 접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새로운 지식도 쌓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매번 챙겨 읽습니다.

영상의학팀 박선아 주임

‘바이오 인사이드 - 진화하는 의료영상: CT와 MRI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최초의 CT 스캔 이미지를 보며 의료영상 기술의 발전을 실감했습니다.